

대한민국중국대사관
tel:(86)108531-0700 ext 0860
fax:(86)108531-0868
www.koreanembassy.cn

中國環境市場動向
www.konetic.or.kr

편집관리: 박비자, 전연화
번역협찬: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
Email : dusk1120@naver.com

국가환경정보센터에서는 중국주재 정보원(IP)로부터 수집된 환경시장 정보를 국내 1만7천여 명의 기업인 및 전문가에게 주간단위로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동 자료의 수신을 추천코자 할 경우 huanjing00@hanmail.net 메일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호 동향부터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揭示板

1편 : 주간 환경 이슈

1.1 환경보호부 10월 중점지역과 74개 도시 공기질량상황 발표

2편 : 정책자료 · 기타

2.1 6천만 농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공약

3편 : 중국 풍경

3.1 中 주령허우 직장인 절반이 이직 원해 "왜?"

環境動向

1. 정책 · 법률 · 기타

- 1.1 중국은 저탄소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 성장을 계획 (기후변화정보망 2014.11.24)
- 1.2 2014년도 기후변화정책과 행동보고 발표 (기후변화정보망 2014.11.26)

2. 사업계획 · 발주동향

- 2.1 중국은 최근 3년 2.7억 위안을 들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도와 (기후변화정보망 2014.11.25)
- 2.2 50억위안, 대기오염방지에 지원 (중국환경망 2014.11.27)
- 2.3 정진지지역, 교통일체화 사업 실시목록(신화망 2014.11.27)

3. 환경오염현황 및 관리

- 3.1 환경보호부는 11월22일~26일, 정진지 지역 대기 오염 발생가능성을 통보 (중국환경망 2014.11.24)
- 3.2 환경오염 제3차 방지에 3가지 어려움 직면(신화망 2014.11.24)
- 3.3 10월 북경에서 4차례 심각한 오염이 발생, 시민들이 매일 환경보호비용 평균 119.5위안 사용 (저탄소망 2014.11.25)

經濟動向

1. 주요기사

- 1.1 중국,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추진(중국경제망 '14.11.24)
- 1.2 후룬연구소, 중국 부자의 80%가 자녀 해외 유학 계획이 있다고 발표(중국광파망 '14.11.24)
- 1.3 국무원, 행정 간소화 심화 방안 발표(매일경제신문 '14.11.25)
- 1.4 '14.11월 중국 쇼핑 시즌 택배 처리량 5.4억 권 (인민망 '14.11.25)
- 1.5 재정부, '14.1-10월간 국유기업 경영 현황 공개 (제일재경일보 '14.11.26)

2. 국내산업 (계속)

- 2.4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예정(21세기경제보도 '14.11.26)
- 2.5 국무원, 7개 사업 분야 민간자본 투자 허용(중국망 '14.11.26)
- 2.6 공업·신석화부, 적격 철강기업 리스트 발표(경제일보 '14.11.27)

3. 금융지정

- 3.1 베이징시,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 인하 예정(신경보 '14.11.23)

2. 국내산업

- 2.1 유류제품(成品油) 가격, 9차례 연속 하락 가능 (경제참고보 '14.11.25)
- 2.2 까르푸, 중국 편의점 시장 진출(제일재경일보 '14.11.25)
- 2.3 발개위, 4개 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가 승인(신경보 '14.11.26)

【 揭 示 板 】

[1편 : 주간 환경 이슈]

1.1 환경보호부 10월 중점지역과 74개 도시 공기질량상황 발표

(중국환경망 2014.11.25)

환경보호부가 2014년도 10월의 정진지 도시권,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지역과 74개 주요도시의 공기질량상황을 대외에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월에 74개 주요도시의 도달일수비율의 범위가 16.1~100%로 기준달성 평균비율이 65.9%로 나타났으며 경도오염 일수 비율이 21.2%, 중도오염이 5.5%, 심각이 5.8%, 매우 심각이 1.6%로 나타났다. 주요오염물은 초미세먼지 그 다음이 오존이었다.

롄징, 하룬, 라싸, 양주 4개 도시의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100%, 해구, 장가구, 서주 등 22개 도시의 도달일수 비율은 80~100%, 귀양, 대런, 남푹 등 28개 도시의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50~80%, 한단, 보징, 형태 등 20개 도시의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대비, 74개 도시 평균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56.2%에서 65.9%로 9.7% 상승하였다. 도시환경공기질량 종합지수 평가에 따르면, 10월 공기질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0개 도시로 형태, 보징, 석가장, 쟁춘, 한단, 남방, 당산, 형수, 실양, 하얼빈이 이름을 올렸고, 이와 반대로 공기질량이 우수한 지역으로 주산, 라싸, 해구, 하문, 복주, 태주, 장가구, 대런, 염성, 헤주가 이름을 올렸다.

정진지지역 13개 도시 공기질량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16.1~96.4%로 평균 40.3%, 74개 도시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25.6%로 평균 기준초과일수 비율은 59.7%로 나타났다. 그 중 심각일수가 22.6%, 매우 심각일수가 6.8%로 나타났다. 주요 오염물로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밝혀졌다. 작년 동기대비, 정진지지역 13개 도시 평균 기준 도달일수는 37.3%에서 40.3%로 3% 상승하였다. 9월 대비, 정진지지역 13개 도시 평균 기준 도달일수는 25.4%로 나타나 공기질량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월 북경시에는 7일~12일, 17일~21일, 23일~26일, 29일~31일 모두 4차례 심각일수가 발생하였다. 그중 심각일수가 6일, 매우 심각이 4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대비 심각이상의 오염일수가 5일 증가하였고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9.7%로 하락하였다. 오염물 비중은 초미세먼지 28.0%, 미세먼지 32.7%, 이산화질소 12.3%로 나타났으면 이산화황 월평균 농도가 28.6%로 하락했다. 9월 대비 기준 일수도달비율은 1.7%상승하였고 초미세먼지 77.6%, 미세먼지 71.8%, 이산화황 42.9% 이산화질소 40.4% 비율로 나타났다. 장강 삼각주 지역 25개 도시 공기질량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58.1%~100%로 평균 82.7%로 나타났다. 평균 기준초과 일수비율은 17.3%로 중도오염 이상의 오염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심각 및 그 이상의 오염 일수 비율은 74개 도시의 7.4%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주요오염물로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이다. 작년 동기대비 장강삼각주 25개 도시 평균 기준도달 일수는 75.8%에서 82.7%로 6.9% 상승하여 공기질량이 개선되었다. 9월 대비, 장강삼각주 25개 도시 평균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7.3% 하락하였다.

[2편 : 정책자료 · 기타]

2.1 6천만 농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공약

(중국환경망 2014.11.26)

24일, 수리부 관계자는 이극강 총리에게 선명하게 대비되는 물 두통을 건넰었다. 하나는 혼탁한 황색의 물로, 호남 익양(益陽)도시 중어구항(中魚口鄉)사람들이 과거에 마셨던 물로 땅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옆에는 맑고 깨끗한 물로 농촌음용수 안전공정을 거쳐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 농촌음용수 안전공정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24일 중국중앙당정치국 상무위원회, 국무원 총리 이극강(李克強)은 수리부를 방문하여 회의를 가졌다. 그는 먼저 농촌수리사를 방문하여 농촌음용수 안전공정계획 진전 상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고, 이어서 수리공정추진상황관 앞에서 수리사업에 대한 투자건설 보고를 받았다. 그는 6천만 농촌인구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체재 요구했고 이는 정부가 전국 인민들에게 공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제때에 품질보장을 할 것을 주문했다.

식수안전

수리부 제1관측소에서 담당자는 각 성 구역의 농촌음용수 안전도를 나타내는 표를 보여주었다. 총리가 오기 하루전 수리부는 올해 6100만 농촌인구의 식수안전을 새롭게 해결하였다. 이극강(李克強) 총리는 식수공정이 안정된 후 음용수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담당자는 표에 나타난 수치를 근거로 하여 자세히 파악하였고 답했다. 즉 558만명이 식수안전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수리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내년연말까지 모든 농촌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극강(李克強) 농촌 음용수안전공정은 매우 힘든 일인 동시에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올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내년 수원(水源)에 변화가 있어 인민들의 음용수는 또 안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리부 담당자: 수리부는 전국인민들에게 공약하여, 기본적으로 내년 농민들의 음용수 안전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인민들이 오늘 이후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것입니다.

각 성이 체결한 “농촌음용수안전공정건설책임서”를 보면서 총리는 책임서는 어디까지나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것이므로 관건은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리사업

농촌음용수 안전공정 이외에, 총리는 수리부 중점 공정건설 진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극강(李克強) 사람들은 항상 중대한 수리공정은 노력은 현재에 있고, 이익은 오랜 세월지속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 생각에는 순서를 바꾸어 증대수리공정은 확실히 이익은 현재에 있고, 노력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나라 이빙(李冰)부자가 건설한 두강림(都江縣)은 지난주 절강성 시찰시 본 형주의 소제(蘇堤), 백제(白堤)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세인들의

청송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수리공정은 건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기본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침 현재 중대수리공정건설이 유리한 시기이므로 되도록 빠른 공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몇 년전, 서남쪽으로 시찰을 가서 현지 인민들과 현지인들이 철실히 바라는 수리공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정부관계자도 같은 말을 반복하여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재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리공정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고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관리

이극강(李克強) 총리는 어떻게 중대수리공정건설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개혁혁신을 강조하였다.

이극강(李克強): 수리공정건설은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시장에 의존하여 창의적인 융자투자 시스템으로 PPP, BOT, TOT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의 투자심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각지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활의 근본입니다. 고대 우 임금의 치수였던 때부터 중국문명사는 거의 치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의 수리는 13억 인구의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1인당 평균 민물 점유량이 세계평균 수준의 28%입니다. 공업화, 도시화의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의 제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는 모두 물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가 하나가되어 상호협조를 통해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시는 것은 이극강(李克強) 총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올해 3월 그는 양회 대표위원에게 <정부작업보고>작성 시, 올해 6,000만 농민의 음용수 안전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김에 그는 특별히 수리부를 방문하여 환경점검을 통해 음용수 안전확보를 점검했다.

[3편 : 중국 풍경]

3.1 中 주링허우 직장인 절반이 이직 원해 "왜?"

(온라인 2014.11.25)

중국의 '주링허우(90后, 90년대 이후 출생자)'의 절반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중국청년보는 중국의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인 즈롄자오롄(智联招聘)의 '2014 추계 화이트칼라 이직지수 연구보고' 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링허우 응답자의 55%가 "이직을 원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비중은 '바링허우(80后, 80년대 이후 출생자)'의 47.3%보다도 높았다. 주링허우가 이직을 원하는 원인으로 "적절 발전에 대한 불만"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월급에 대한 불만", "업무 스

- 5 -

트레스", "업무와 생활의 균형" 등이 꼽혔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노동경제연구소 정제(程杰) 연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직업 발전성을 쫓는 데에는 실제로 더 높은 월급을 쫓는다는 것"이라며 "월급이 시종일관 우선 요소가 되진 않겠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젊은 구직자들이 일을 통해서 '얼마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와 함께 '업무 이외의 여가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역시 "이전 연구에서도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중국 전역의 갓 취업한 젊은이들이 초기 3년 동안 일할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학원 위하이보(于海波) 교수는 "젊은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업을 찾기 전에 일찍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環 境 動 向 】

1. 정책·법률·기타

1.1 중국은 저탄소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성장을 계획 (기후변화정보망 2014.11.24)

- 중국과학기술협회 주석 한계덕(韓啓德)은 11월 21일 제3차 세계저탄소 생태경제 고위급포럼에서 중국은 저탄소 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성장요소를 길러 저탄소배출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공업, 친환경 건축과 현대교통 시스템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차 세계 저탄소 생태경제대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서성 남창(南昌)에서 거행되며 생태, 개방, 협조, 공생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포럼이다. 주룽취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각 성(省)의 대표단, 홍콩, 마카오, 대만 대표단, 주중주재관, 국제조직대표단 등 약 12,000명이 참가했다.
- 한계덕(韓啓德)은 개혁개방이래로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경제규모가 세계 2위로 뛰어오르는 세계인이 주목할만한 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경제와 사회 발전면에서 자원 환경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중국정부는 주동적으로 경제성장속도를 조절하여 생태문명건설을 경제건설에 융합하여 정치, 문화, 사회의 각 방면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결정을 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치를 취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저탄소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성장점을 통해 공업과 친환경건설 및 교통시스템을 빠르게 건설할 것이다. 중국은 개관도상국 가운데 가장 일찍 기후변화대응방안을 제정실시했다. 정부가 기후변화대응방안을 내놓아, 2020년 탄소배출강도를 2005년과 비교하여 40~50%감소 목표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에 진입하고 나서 취한 중대한 전략적 정책결정이다. APEC기간 중미 양국 정상은 이산화탄소 감소배출, 생화학 친 환경에 너지, 환경보호실무협조 부문에서 합의를 보아 세계기후에 대하여 새로운 동력을 갖추었다.
- 한계덕은 최근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건축, 저탄소 소비 등의 면에서 전면적으로 세계각국과 국제조직의 협조를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6 -

1.2 2014년도 기후변화정책과 행동보고 발표 (기후변화정보망 2014.11.26)

- 12월에 열리는 UN리마기후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월 25일 <2014년도 기후변화대응정책과 행동보고>를 발표하여, 전반적으로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조치와 이뤄낸 성과를 소개했다.
- <보고>는 총 7개 부분으로 기후변화감감, 기후변화적응, 저탄소발전시범, 전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 국제교류와 협조 등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해진화(解振華)는 보고 발표회에서 중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이래로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한 에너지구조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전국 GDP이산화탄소 배출은 전년 동기대비 4.3%감소하였고 2005년과 비교하여 누계 28.56% 감소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중국은 안정적으로 저탄소 성(省)과 저탄소 도시 시범도시를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배출권 교역시범을 조성하여 저탄소 공급단지, 저탄소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7월까지, 7개 시범 성 도시 탄소배출권교역시장에서 총 137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거래하여 누계 금액 5억 위안을 넘어섰다. <보고>에서는 중국은 2013년 이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입법하고, 관련정책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학기술, 온실가스 통계 등을 통해 기후변화기본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국제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리마에서 열리는 회의에 있어서 해진화(解振華)는 공동이지만 구별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하여 목표행동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려 한다.

2. 사업계획 · 발주동향

2.1 중국은 최근 3년 2.7억 위안을 들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도와 (기후변화정보망 2014.11.25)

- 11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해진화(解振華)는 중국은 온 힘을 다해 기후변화 협조에 임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1년 이래로 누계 2.7억 위안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2,000여 명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료와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 국무원은 오늘 중국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행동 2014년 보고를 발표회를 열어,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부주임 해진화(解振華)가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중국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며, 2020년 전까지 탄소 강도를 40-45%의 기후변화 행동목표 실현 확보를 위하여, 2013년 단위 GDP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누계보다 28.56% 감소시켰다. 이어서 그는 올해 3분기 전국 에너지 소비강도와 탄소강도를 낮추는데 한 단계 발전하여 에너지 소비가 작년 동기대비 4.6%, 탄소가 5%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삼림축적량은 이미 12.5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1차 에너지소비의 비 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이 작년 연말에 이미 9.8%에 도달하였다. 중국도 농사, 삼림, 물,

해양, 기상 등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 능력에 발전을 이루었다. 42개 저탄소 시범 지역과 도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저탄소 모델을 찾았다. 전국 7개 저탄소 교역 시범 도시는 2014년 10월까지 총 1375만 톤 이산화탄소를 교역하여, 누계 5억 위안을 넘어서 전진도 순조로운 편이다.

- 이외에 9월 19일 <국가대응 기후변화 계획(2014-2020)>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작업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6월, 저탄소의 날 홍보교육과 지식 보급활동을 시작하여, 모든 사회가 기후변화행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올해 1년 채택한 조치는 효과를 거두어 중국이 실제행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뚜렷히 드러냈다.
- 9월24일 장교리 부총리는 UN기후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최선을 다해 기후변화대응에 추진할 것이며, 내년부터 현제를 기조로 하여 매년 자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11월 12일, 중미 양국은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내어 2020년 후 각자 기후변화 행동목표를 발표했다. 동시에, 양국은 저탄소, 환경보호,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정지었다.

2.2 50억 위안, 대기오염방지에 지원 (중국환경망 2014.11.2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약칭: 발개위)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어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광역적 중점분야 융자투자 장려에 관한 사회의 투자 가이드(이하약칭: 의견)>및 생태환경보호 추진 등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의견>은 총 11개 부분으로 39조의 내용이 있다. 그 중에는 광역적인 생태환경보호 투자운영시스템, 사회자본을 통한 에너지시설투자 장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중점공정은 대체로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견>은 누가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발개위 관계자는 <의견>의 발표가 업종의 독점과 시장장벽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하게 개방된 투명한 시장규제를 조성하여 운영권리명등, 기회평등, 규제평등의 투자환경, 시장의 주체적 활력 및 잠재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등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발개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사 사장 하병광(何炳光)은 작년 9월 국무원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내놓은 후, 발개위는 주변 5개 작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첫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엄격한 관리. 둘째, 에너지 친환경화 추진. 셋째, 우수한 산업구조. 넷째, 알맞은 경제정책. 다섯째, 중점공정설치 추진이다.
- 올해 정부 중앙예산에 50억 위안이 대기오염방지 공질설치에 배정되어 있다. 그 중 25억위안은 정진지 주변 및 우루무치 등 중점 지역 대기오염방지에 지원이 된다. 동시에 정부 중앙예산에 113억 위안이 도시 오수, 쓰레기처리 설비 건설 등에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 가운데 고려사항으로는 어떻게 사회자본 투자를 끌어내고 촉진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발개위 중점공정 추진은 주로 중점업종 대기오염방지와 친환경생산기술 개조공정, 석탄보일러 에너지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2.3 정진지지역, 교통일체화 사업 실시목록(신화망 2014.11.27)

- 26일, 교통운수부 부부장 쑹정림(馮正霖)은 정진지 협동발전포럼에서 교통부는 정진지협동교통 일체화 계획 관련하여 회동을 갖고, 앞으로 정진지 지역에 교통일체화실시 사업목록을 작성하여 중분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설비, 교통운수, 스마트교통, 항공항로 등의 분야로, 특히 각종 운수방식의 집적,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교통, 운수입체화 등 어려운 면을 연구제정하여 실행 가능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친진시 교통위원회 주임 무대(武岱)는 정진지협동 발전 교통일체화는 먼저 교통계획 특히 지역적 사고, 행정구역과 인위적인 분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히며, 그런 후에 새로운 사고와 넓은 시야로 고차원의 행동실시 계획을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복성 상무 부장장 양송용(楊崇勇)은 정진지지역과 철로충공사는 100억 위안을 투자하여 교통투자회사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육로방면에서 북경시 교통위원회 주임 주정우(周正宇)는 인구분포와 도시기능발전 진행계획에 따라, G5, 경관(京昆)고속도로, 국도111, 경진(京秦)고속도로, 판달령(八達嶺)고속도로와 정진지지역을 연결할 예정이고, 30여개의 끊어진 도로 가운데 이미 10개에 대하여 연결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공공교통방면에서 북경시는 더 넓은 범위의 공공교통 빠른노선 규획을 편제하고 있고, 1시간 생활권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에 정진지 협동발전 규획이 총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핵삼축일대(兩核三軸一帶)라는 말이 있다. “양핵(兩核)”은 북경과 친진을 가르키고, 삼축(三軸)은 북경-친진-당산을 주축으로 북경-보정-석가광과 북경-당산-태산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대(一帶)는 연해안 경제일대로 친진 민하이구역과 중관촌(中關村), 조비진(曹妃甸)이 3대 중점개발 지역이다.

3. 환경오염현황 및 관리

3.1 환경보호부는 11월22일~26일, 정진지 지역 대기오염 발생가능성을 통보 (중국환경당 2014.11.24)

- 환경보호부 관계자는 최근 매체에 중국환경모니터링 관측소에 근거하여 11월22일~26일 정진지 중남부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영향지역으로는 북경을 포함하여 친진, 석가광, 낭방(廊坊), 당산, 보정, 창주, 한단, 형태(邢台),형수(衡水)등 도시에서 주로 미세먼지가 2급 경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1월22일: 대기확산조건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정진지 북부지역 대기질량이 양호 및 가벼운 오염이 발생, 중남부 지역은 일반 및 심각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오염이 발생
- 11월23일: 대기확산조건이 불리한 상황으로, 정진지 북부지역 대기질량이 경도오염 및 일반오염이 발생, 중남부 지역은 심각한 오염이 발생
- 11월24일: 대기확산조건이 좋은 상태로, 정진지 북부지역 대기질량이 양호 및 경도오염이 발생, 중남부 지역은 일반오염 및 심각한 오염이 발생
- 11월25일: 대기확산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하여, 정진지 북부지역 대기질량이 경도 및 중도오염이 발생, 중남부 지역은 중도 및 심각한 오염이 발생
- 11월26일: 대기확산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하여, 정진지 북부지역 대기질량이 경도 및 중도오염이 발생, 중남부 지역은 중도 및 심각한 오염이 발생

- 해당 관계자는 환경보호부가 이미 관련 성(省)에 예보로 근거로하는 오염형태, 대기오염 긴급대응작업 조기관료, 적시에 대응하는 긴급 대안, 감소배출 제한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 및 호흡기 질병환자 등은 영향을 받으니 외부활동을 삼갈 것을 권유했다. 이외에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동차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3.2 환경오염 제3자 방지에 3가지 어려움 직면(신화망 2014.11.24)

국무원회의에서 환경오염 제3자 방지추진과 정부가 사회에 대하여 환경모니터링서비스 구매 추진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가격제도, 책임범위, 관리감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들은 동시에 추진하면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 각 계가 주체적으로 오염예방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3가지 모델로 오염관리 첫 걸음 마련

환경오염 제3자 방지의 핵심은 전문화로 업무를 나누는 것으로, 오염관리자 “오염시키는 자, 관리하는 자”에서 “오염시키는자, 지불하는자, 관리하는자”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전문 제 3자 오염관리는 3가지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미 3가지 모델의 첫 걸음이 마련되었다. 첫째, 기업협조. 강소성 자광길지달(紫光吉地達)환경과학 유한공사는 직원들이 탈취탈질 용질 강철파이프 제작 시 안회성으로 부품을 보낸다. 부총경리 당건중(唐健忠)은 안회의 한 석탄발전소가 항상 폐기가스 배출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여 훗날 운영책임 때문에 기업에서는 생산에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규모의 석탄발전소에서 환경보호 설비에 약 1.5억 위안이 소모되고 매년 운영자금으로 1,000만 위안 정도가 필요하다. 둘째, 유관기관 협조. MIT, 동제(同濟)대학 공대는 도시와 협조를 맺었다. 남경대학 영성(鹽城)환경보호 기술공정 연구원 부원장 대진군(戴建軍)은 기술수출을 통해서 연운항판교(連雲港板橋)공업단지 등이 이미 강소성 북쪽에 10개 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우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협조. 연운항인입금주수유한공사(連雲港引入金兆水務有限公司)의 중추관리 시스템에는 물이 흐르는 중요한 입구에 모두 신호등을 마련해두었다. 해당 회사 부총경리 이정신(李慶新)은 어떤 지점에서 규정에 어긋난 오염배출이 일어난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 처리비용을 약 1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연운항(連雲港)시 환경보호국 중 기술자 황의학(黃宜鶴)은 우수처리현 현재 제3자가 건설운영하고 많은 사람이 정부 관리감독의 제3자의 눈이 되었다고 밝혔다.

○ 제3자가 관리하는 3가지의 어려움

제3자가 관리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발전정도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의 우려가 있다. 먼저 “오염시키는 자, 지불하는 자”에 대한 가격제도 형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 환경보호설비 공급상은 판매량이 나쁘지 않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길림성의 한 발전소에서는 전기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본래는 24시간 운영을 해야하지만 항상 저녁이면 문을 닫아버린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가격제도에 문제가 있다. 가격제도 가운데 제3자 관리기업은 진정한 시장의 주체가 아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전문환경기업은 발전소에서 주문명세서를 얻기 때문에 배출하는 측과 관리하는 측은 다른 개념이다. 오염을 배출하는 측에서는 심지어 관리하는 상대방을 본인 회사의 소속으로 착각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관리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은 제3자와 오염배출 주체와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3자와 오염을 배출하는 주체는 서로 간에 맺어진 관계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기 쉽다. 어떤 기업은 오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맞지 않지만 환경보호국이 배번 검사하는 결과에서는 합격처리를 받는다. 조사를 해보면 업체

와 계약을 맺은 제3자 즉 오염배출업체를 도와주는 경우로 전말이 드러난다. 오염 배출업체와 제3자의 책임공방은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배출업체는 이미 제3자에게 관리처리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고, 기준미달의 책임은 제3자에게 넘긴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배출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로 계약당시 언급한 기준을 따르지 않아 오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쌍방의 주체적 책임이 불명확 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정확한 관리감독이 어렵다. 제3자가 오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택건설국과 환경보호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두 기관의 기준이 달라 그 또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 **여러 조치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유도**

인터뷰를 한 한 전문가는 제3자 관리가 중국환경악화를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빠른 시일안에 해결책을 찾아 연계하여 오염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탈황탈질 및 화학폐수 집중처리 분야에서 오염 배출비를 받고 배출하는 당사자와 관리하는 제3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3자관리는 공업단지폐수, 폐기물처리 및 화력발전 탈황분야에서 통과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분야에서의 정리의 어려움은 비교적 작지만 규모효과와 반응은 분명하다. 정부는 배출량과 처리비용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배출기업에게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고, 제3자의 관리 자격이 합격한 후에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제3자 기업의 표준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여 완벽한 관리감독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제3자 오염관리기업의 관리체제를 갖추고 3자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장고를 만들어 악덕명단 작성, 신용등급에 따르는 정책적 특혜를 배운이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규범, 상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오염배출 초과 제3자는 서로 관리감독하는 제약을 두는 동시에 업종관리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셋째, 통일된 관리기준으로 제3자가 운영하는 환경보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관 부서간에 소통을 강화한다면 통일된 규범적 관리감독 기준이 마련될 것이며, 배출기업과 제3자 관리기업은 오염관리시설건설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것이다.

3.3 10월 북경에서 4차례 심각한 오염이 발생, 시민들이 매일 환경보호비용 평균 119.5위안 사용 (저탄소망 2014.11.25)

○ 10월 북경시에서 총 4차례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여 31일 가운데 열흘 동안 심각 또는 그 이상의 상태가 발생하여, 작년 동기대비 5일이 늘어났다. 열흘 중에 6일이 심각, 4일이 매우 심각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부의 데이터는 10월7일~12일, 17일~21일, 23일~26일, 29일~31일 4차례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여 매번 심각한 오염이 3~5일 지속되고, 두 차례의 심각한 오염은 사이의 턴도 매우 짧았음을 나타낸다. 10월 북경시의 대기오염물질의 월 평균 농도는 뚜렷하게 상승하였는데, 그 중 초미세먼지와 비세먼지가 평균 7할 상승하였고 특히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77.6%에 달하였다. 10월 31일 정진지 지역 13개 도시 평균 약 12일이 표준에 달하여, 40.3%로 나타났다. 하지만 9월과 비교하여 정진지 지역 10월 공기질량은 크게 떨어져 기준 도달일수는 25.4%에 불과했다. 9월 한달 동안 정진지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심각한 상태의 비율이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10월, 정진지 13개 도시의 심각한 오염일수 비율이 22.6% 매우 심각이 6.8%에 이르러 9월과 대조되었다. 10월24일 하루, 정진지 13개 도시에서 심각 및 그 이상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10월, 3개의 지역가운데 정진지 지역에서 심각 및 그 이상의 상태가 나타났고 장자삼각주, 주강삼각주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 전국 74개 도시의 평균 기준도달일수 비율은 65.9%로 9월과 비교하여 18% 감소하였다. 그 가운데 곤명, 하문, 라싸, 양주 4개 도시의 기준 도달일수 비율은 100% 한달 보정, 형태 등 20개 도시의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경주민이 평균 매일 환경보호료 119.5위안 사용**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북경시민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가 되었다. 이 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73.5%의 북경시민이 환경보호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어 평균 환경비용으로 119.5위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북경시 사회심리연합회, 북경사회심리연구소, 사회과학원 출판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경사회심리분석보고(2013~2014)>에 수록되어 있다. 2796명에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86.9%의 주민이 북경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그 중 47.8%가 매우 심각, 39.1%가 비교적 심각으로 응답하였다. 대기오염이 92.2%, 음용수 오염이 56.6%로 북경시민 스스로에게 위협이 되는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濟動向】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제공

1. 주요기사

1.1 중국,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추진(중국경제망 '14.11.24)

-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14.11.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바, 상기 G20 정상회의의 발안에 따라 중국도 전면적인 국제 조세회피 방지 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조세회피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통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보도함.
- 또한 중국 내 관련 인사들은 '14년 G20 정상회의는 경제 활동·가치 창출 활동이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했기 때문에, 세계의 공평이자 세계의 시장인 중국에 유리하고, 조세회피처를 제공하는 국가와 세율이 낮은 국가에게 불리한 국제 조세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함.
- 이 외에도 중국경제망은 '13.8월 중국은 OECD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CMAATM)(*)을 체결, 56번째 협정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 사회의 조세회피 행동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와 조세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CMAATM)
- 가입국 간 금융·조세 정보 상호 교환을 통해 역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1.2 후룬연구소, 중국 부자의 80%가 자녀 해외 유학 계획이 있다고 발표(중국광파망 '14.11.24)

- '14.11.22(토) 후룬(胡潤)연구소는 '14년해외교육특별보고서(2014海外教育特別報告)를 발표, 천만장자 이

- 상 부자의 80%가 자녀 해외 유학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일본과 프랑스 부자들은 각각 1%, 5%만 자녀 해외 유학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며, 중국 부자들의 자녀 해외 유학열이 높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은 '13년 말 후룬 보고서 기준 1천만 위안 이상 자산을 보유한 천만장자는 109만 명으로, 80% 이상의 중국 천만장자가 자녀 유학 계획이 있을 경우 약 87만 명 이상의 중국 부자가 자녀 유학 계획이 있는 것이라며, 후룬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계 방법에 대해 질문함.
- 후룬은 중국광파망과의 인터뷰에서 109만 명 천만장자 가운데 500명을 선정, 면대면 조사를 통해 자녀 유학 계획이 있는지, 어떤 국가를 선호하는 지 등을 질문한 결과 80% 이상의 천만장자가 자녀 유학 계획이 있었으며 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을 선호하며 천만장자의 경우 자녀가 평균 18세 일 때, 억만장자의 경우 평균 16세일 때 유학을 보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광파망은 후룬의 통계 방법이 따르면 1명의 중국 부자가 2,180명의 중국 부자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통계 방법은 오차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자녀 유학 계획 관련 실수요와는 편차가 있다고 보도함.

1.3 국무원, 행정 간소화 심화 방안 발표(매일경제신문 '14.11.25)

- '14.11.24(월) 국무원은 '일부 행정심사·승인 항목 취소와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 행정심사·승인이 필요한 58개 항목은 취소하거나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 총 67개 적외자적증·인증서 발급 항목은 취소하며, 19개 훈장·표창장 발급 항목을 취소하고 82개 기업등기·등록 관련 사전심사 항목을 모두 사후심사로 전환하기로 함.
 - 금번 사후심사로 전환된 기업등기·등록 관련 업종은 식품생산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요식업 서비스허가증 등 서비스, 관광, 보건, 문화, 교육과 관련된 업종 다수 포함
- 지린성(吉林省) 공상국(工商局) 관련 인사는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기업·점포 창업 초기에 긴 사전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공장 건설, 은행 계좌 개설, 설비 매입 등이 불가능해 창업과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기업등기·등록 관련 항목이 사후심사로 전환됨에 따라 창업 촉진, 경제 안정 성장, 일자리 확대, 민생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외에도 매일경제신문은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기업등록국(企業注冊局) 저우스평(周石平) 국장은 공상총국과 중앙정부 부처는 연말까지 기업등기·등록 관련 사전심사 항목을 정리해, 추가로 2차례 더 사전심사 항목을 사후심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연말 전에 사후심사 전환 항목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함.

1.4 '14.11월 중국 쇼핑 시즌 택배 처리량 5.4억 건(인민망 '14.11.25)

- '14.11.25(화) 우정국(郵政局)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4.11.11일 Single's Day(*)로 인해 '14.11.11'16일 기간 전체 택배 처리량은 5.4억 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처리 물량이 56% 증가함.
 - * 매년 11.11일은 숫자 1이 겹친다하여 Single's Day로 불리며, 미국의 Black Friday와 같은 최대 쇼핑 시즌일.
- 또한 상기 데이터에 따르면 '14.11.11'16일 기간 1일 택배 처리량은 최고 1.026억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해 '14년 평균 1일 택배 처리량의 3.1배에 달했으며, '14.11.21일 기준 94% 이상의 택배가 이미 배달 완료 된 것으로 나타남.

1.5 재정부, '14.1-10월간 국유기업 경영 현황 공개(제일경제일보 '14.11.26)

- '14.11.25(화) 재정부가 공개한 전국 국유기업(국유지주 기업 포함)의 '14.1-10월간 수익·부채·납부 세액 등과 관련된 국유기업 경영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이윤 총액과 납부 세액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비용 지출과 채무 증가폭이 소득과 자산 증가폭보다 높게 나타남.
 - '14.1-10월 간, 전국 국유기업은 수익은 총 33317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 비용 지출은 총 379754.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 업종별로는 철강·교통·자동차·부동산 건설·전력 등 업종의 이윤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비철금속·석탄·석유·석유화학·우정(郵政)·통신 등 업종의 이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財政科學研究所) 바이정명(白景明) 부소장은 석탄·광물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국유기업의 이윤이 증가했고, 이 외에도 경제 구조 조정에 따라 업종별 특화가 가능해져 자동차, 전력 등 업종의 이윤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함.
- 반면, 중국기업연구원(中國企業研究院) 리진(李進) 수석 연구원은, 국유기업의 비용 지출 가운데 판매 비용과 관리비용이 각각 6%와 3.3% 증가한 반면, 대출 금리 상환 등 금융 관련 비용이 18%나 증가해, 재무제표 가운데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기업 대출난이 국유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2. 국내산업·시장정보

2.1 유품제품(成品油) 가격, 9차례 연속 하락 가능(경제참고보 '14.11.25)

- '14.11.28(금) 중국 유품제품 가격 조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수의 관련기관들은 '14.6월 이후 중국 내 유품제품 가격이 9차례 연속 하락해 1톤 당 150위안~180위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미국 경제 개선, 중국의 금리 인하 정책 및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감산 가능성 등 요인으로 인해 국제 원유 가격이 '14.11.2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는 경질유 선물 가격이 0.87% 올라 배럴당 76.51달러를 기록하고, 브랜트유는 1.3% 올라 배럴당 80.36달러를 기록하는 등 '14.11.20일 이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 중위자문(中宇資迅) 장샤오웨이(張曉飛) 분석가는, 비록 최근 들어 원유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14.11.26(수)일부터 매일 평균 원유 현물 가격이 8달러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중국 내 유품제품 가격은 9차례 연속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2.2 카르푸, 중국 편의점 시장 진출(제일경제일보 '14.11.25)

- 최근 프랑스 최대 소매업체인 카르푸(Carrefour)는 자사 편의점 브랜드인 'Easy Carrefour(중국명, Easy家樂福)'라는 이름으로 중국 내 첫 편의점을 상하이에 개설함.
 - 카르푸는 '95년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후 본토화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04년 중국 서우렌그룹(首聯集團)과 합자회사를 설립, 베이징을 중심으로 슈퍼마켓 체인점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장경쟁에서 밀리나 '06.6월 슈퍼마켓 체인점 사업을 중단함.

- 이에 대해 China Shopping Center Development Association of Mall China(中國購物中心產業資訊中

- 心)의 귀저(郭增利) 주임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와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는 중국 소매업의 중심지로 편의점이 발전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며, 향후 까르푸 편의점 지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최근 중국연쇄경영협회(中國連鎖經營協會)가 24개 편의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편의점 기업의 평균 순 수익은 '12년 대비 0.67% 증가하고, 점포당 평균 판매액도 2.3% 증가하는 등 중국 내 편의점 시장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3 발개위, 4개 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가 승인(신경보 '14.11.26)

- '14.11.25(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총 632.4억 위안 투자 규모의 4개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가 승인했음을 발표, 이에 따라 '14.10월 이후 발개위가 승인한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총 25개로 집계됨.

※ 발개위 4개 철도 건설 프로젝트 노선 개요

- 내몽고자치구(內蒙古) 정란치(正藍旗)- 허베이성(河北省) 장자커우시(張家口市)
- 쓰촨성(四川省) 충칭시(重慶市)- 후베이성(湖北省) 화이화시(懷化市) 철도 확장공사
- 지린성(吉林省) 장춘시(長春市)-지린성(吉林省) 바이칭시(白城市) 철도 개조공사
- 산시성(陝西省) 한중시(漢中市) 양평관(陽平關)- 산시성(陝西省) 안강시(安康市) 제2기 공사
- 이에 대해 신경보(新京報)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3대 요소인 소비·수출·투자 가운데 국내 소비 부진, 유럽의 경제 불황과 일본의 불황으로 인한 수출 하락 등으로 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해 경제 하방 압박이 증대되고 있어, 기초인프라 건설·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제고시켜야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經濟學院) 류원춘(劉元春) 부원장도, 경제 하방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함.
- 이 외에도 푸단대학(復旦大學) 공공경제연구센터(公共經濟研究中心)의 스테이(石磊) 주임은, 남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11년~'15년)과 13차 5개년 계획 기간('16년~'20년)에 진행되는 투자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중서부 지역에 집중 투자, 중서부 지역의 기초인프라 개조와 경제 성장을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2.4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예정(21세기경제보도 '14.11.26)

- '14.11.26(수)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국유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中國石油天然氣集團, 이하 'CNPC')이 혼합소유제 개혁의 일환으로 자사 자회사 2곳을 선정, 각 자회사의 자본 35%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혼합소유제 개혁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자회사는 중국석유천연유전공사(中國石油吉林油田公司, 이하 '지린유전')과 중국석유다강유전공사(中國石油大港油田公司, 이하 '다강유전')로, 각각 지린성(吉林省) 송원시(松原市)와 텐진(天津)에 유전을 운영하고 있음.
- 21세기경제보도는 CNPC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대 수익률을 미달성, 무채비율이 45%에 달해 일부 사업 부분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규모 축소를 목적으로

로 혼합소유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반면, 지린유전과 다강유전이 모두 노후화가 진행되어 석유생산량이 매년 5%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민영석유기업 책임자는, 민영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면 안정적인 생산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며, 다수의 선진국 석유기업들도 노후화가 진행 중인 유전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함.

2.5 국무원, 7개 사업 분야 민간자본 투자 허용(중국망 '14.11.26)

- '14.11.26(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국무원 중점 혁신 분야의 투자·융자 메커니즘 사회 투자 독려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 의견')을 발표, 국무원 지시에 따라 발개위 및 기타 정부부처가 총 7개 사업 분야를 선정, 민간자본 투자와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을 소개함.
- 발개위 리푸민(李福民) 대변인은 민간자본 투자 참여 확대 대상으로 선정된 생태·환경보호, 농업·수리(水利), 시정(市政),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사회사업 총 7개 사업 분야는 ▲경제·사회 발전에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지, ▲구조조정 촉진 및 사회 취약 분야 보완이 가능한지, ▲13차 5개년('16년~'20년) 계획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함.
- 상기 대변인은, 향후 국무원의 업무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지도 의견' 홍보·해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제반 환경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 투자의 적극성을 고취하겠다고 밝힘.

2.6 공업·신식화부, 적격 철강기업 리스트 발표(경제일보 '14.11.27)

- '14.11.25(화)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는 '철강업종규범조건(鋼鐵業規範條件)'에 부합하는 147개 철강기업 리스트를 발표, '12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305개 적격 철강기업을 선정함.
- 공신부 원자재공업사(原材料工業司) 책임자는, '12년부터 철강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철강업종규범조건'을 발표한 이후, 3차례에 걸쳐 등 문건에 명시된 철강 품질, 환경 보호, 에너지·자원 소모, 공법·장비 수준, 생산 규모 등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강기업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적격 철강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고 소개함.
- 공신부 책임자는, 적격 철강기업 리스트에 선정될 경우 공신부 및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외에도 적격 철강기업 선정 사업을 통해 철강 과정 생산 완화, 철강업계의 제도적인 발전, 산둥(山東)-윈난(雲南)-구이저우(貴州) 등 일부 기업의 통·폐합, 선진 공법·장비 이용 촉진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함.
- 또한 상기 책임자는, 현재까지 선정된 적격 철강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표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만약 '철강업종규범조건'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적격 철강기업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함.

3. 금융·재정

3.1 베이징시,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 인하 예정(신경보 '14.11.23)

- '14.11.23(토) 중앙은행(인민은행)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4%p와 0.25%p 인하한데 이어 '14.11.22(금) 베이징주택공적금관리센터(北京住房公積金管理中心)은 '14.11.24(월)부터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인하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 주택공적금은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일정부분의 주택공적금을 납부하고, 회사에서 일부분을 납부하는 일종의 장기주택적금임.
- 근로자는 주택 구매 시 주택공적금을 이용할 수 있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주택공적금 납입 액수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함.
- o 베이징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모든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는 각각 0.25%p 씩 인하되어 5년 이하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는 4%에서 3.75%로, 5년 이상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는 4.5%에서 4.25%로 인하될 예정이며, '14.11.22일 이전 대출금 가운데 1년 미만 대출은 기존 금리를 적용하고, 1년 이상 대출은 '15.1.1일부터 신규 대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o 이에 따라,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20년 만기 800만 위안을 대출 받은 경우,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 인하 이전에는 매월 상환금이 5060.8위안이었으나, 대출 금리 인하 조치 시행 이후 매월 상환금이 4953.6위안으로 107.2위안 감소하게 되어 주택 대출금 상환 부담이 경감됨.